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4일 수요일 음 8월 19일 (11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제주는 호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5°C, 낮 최고기온은 28-29°C로 전망된다.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3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달뜨기.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식중독지수 위험, 자외선지수 낮음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호리고 비 24/29°C, 모레 구름 많음 25/29°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월드뉴스

미국 옥수수 수확 전망치 '10년만 최저'

지속적 가뭄 주 원인

미국 서부 지역에서 가뭄이 지속되면서 옥수수 수확량이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 연합뉴스

미 농무부는 이날 발표한 월간 세계 농업수급 예측 보고서에서 2022/23 시즌 옥수수 재고 전망치를 13억8800만 부셀(곡물 중량 단위·1부셀=27.2kg)에서 10년 만에 최저치인 12억1900만 부셀로 낮췄다.

날씨가 이어지면서 미국산 옥수수와 콩 예상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다.

미 농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는 콩 선물 물 가격이 4.2% 뛰면서 2개월 만에 일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옥수수 가격은 6월 28일 이래 최고치로 반등했다.

전쟁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와 콩 공급량이 줄자 전 세계는 미국의 대규모 생산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달 미국 서부 지역에서 고온 건조한

미 농무부는 옥수수 1에이커당 평균 수확량은 172.5 부셀로 총 139억 4400만 부셀이 수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예측이 들어맞는다면 미국에서 3년 만에 최저 수확량이 된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건강&생활



이 방 훈 재활의학전문의를·의학박사

류마티즘이란 관절과 관절주변의 연골, 뼈, 근육 등에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90년대 이전만 해도 불치병이라 불리고, 과거에는 좋은 약도 없어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았으나 지금은 조기 진단,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로 행복한 삶을 지내는 환자들이 많아졌다.

프랑스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는 50대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했다. 손가락 마디 관절이 붓고 변형이 와서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림 스타일도 바뀌었다. 죽기 1년 전 1918년에 그

관절 투혼 예술가들

린 '목욕하는 여인들'은 1884년에 그린 같은 제목인 '목욕하는 여인들'의 그림과 확연히 다르다. 대상의 형태보다 붉은 색감을 강조하고 붓 터치도 정교함을 잃은 대신 더욱 역동적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물리적 한계로 인한 것과 동시에 그가 추구한 개성과 화풍의 결과라 여겨지고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대로 된 관절염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의 친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느냐?"고 묻자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앙리 마티스(1869-1954)는 관절염의 한계를 색종이 오리기로 극복했다. 손가락 마디 관절들이 아프고 변형이 와 쓰기 어려워지자 붓 대신 가위를 이용해서 색종이를 오

려 붙이는 새 기법을 창안한 것이다. 후기 대표작 '이카루스' 등이 이렇게 해서 탄생했다.

라울 뤼피(1877-1953)는 말년에 만성적인 다발성 관절염으로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작업을 계속했다. 이 시기의 작품은 대지와 자연에 대한 찬가, 들뜬에서 노동하는 정경 등이 주를 이뤘다. 캐나다 출신 모드 루이스(1903-1970)는 작고 구부러진 신체 기형으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손의 움직임 마저도 못했다. 낙천적인 루이스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밝은 그림을 많이 그렸다. 처음에는 단돈 몇 달러에 그림을 팔았지만 1964년 무렵부터 인정받아 나중엔 닉슨 미국 대통령의 의뢰를 받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오늘날 그녀의 생애를 배경으로 다

양한 작품이 제작됐고, 영화 '내 사랑 Maudie'가 2016년 개봉했다.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1852-1926)는 여섯 살 때부터 관절염을 앓았다. 관절 통증은 가우디 일생 내내 안화와 약화를 반복하며 그의 생활을 고달프게 했다. 가우디의 관절염은 어린 시기에 특별한 이유없이 발생하는 '특발성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보인다. 발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발등 덮개 없는 신발을 신고, 양말을 두 장 겹쳐 신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그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같은 천재적인 건축물을 설계했다. 이 성당의 첨탑들은 인체의 뼈를 닮은 듯하다. 의학계에서는 "은 종일 관절통에 신경 써야 했던 가우디가 뼈를 형상화한 건축물을 고안한 것은 어쩌면 필연인지 모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열린마당

가을은 플로깅하기 딱 좋은 계절



양 근 혁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팀장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은 주말이나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한라산으로, 오름으로, 울레길을 걸으며 몸에 쌓인 칼로리를 불태워서 건강까지 챙기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겠다는 플로깅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강태오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등장했다. 극 중 우영우(박은빈 분)는 이준호(강태오 분)와 데이트 장면에서 큰 망태기를 들고 조금 우습게 등장해 쓰레기를 줍는 모습과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모습을 연출

했다. 이 드라마 이외에도 실제로 이름을 대면 바로 알만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플로깅 활동에 동참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전용봉투를 나눠주고 있다. 시 안내센터(시청 현관앞 입구) 및 읍면동주민센터(17개소)에서 플로깅 참여를 신청하면 1인 1매(10ℓ용)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집에서 쓰레기 봉투를 챙겨 나와도 된다. 플로깅 활동 후에는 근처 클린하우스나 재활용 도움센터에 버리면 청소차가 수거 처리한다. 플로깅 활동은 일반적으로 30분 기준으로 288kcal을 소모하여 단순 조깅(235kcal)보다 약 18%의 칼로리를 더 소모해 건강 챙기기에 보탬을 준다.

'플로깅', 마음은 있었지만 여름에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번 가을에는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플로깅' 활동에 동참하자.

말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손 창 보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 서늘한 가을 날씨에 가족, 연인과 함께 날들이 많아지는 요즘. 방심한 순간 산란기 말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8-9월 산란기를 맞은 말벌들은 활동이 왕성해진다. 특히 추석 전·후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맘때쯤 말벌 쏘임 관련 사고가 급증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벌 쏘임 사고 평균을 보면 6월 342건에서 7월 988건으로 2.8배가 증가했고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사망했으며 3년간 연평균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벌 쏘임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날들이 등의 야외활동을 나갈 때에는 달콤한 과일이나 음료를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색의 옷과 모자를 착용, 유인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 팔을 휘두르지 말고 벌집에서 직선거리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빨리 피하면 된다.

또한, 불가피하게 벌침을 제거 시 카드 등 납작한 것으로 밀어 침을 제거해야 한다. 쏘임 부위의 감염방지를 위해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다. 이때 벌침을 억지로 제거하고자 여러번 시도하다 상처 부위를 자극하는 것은 염증 등을 유발해 오히려 위험하다. 또한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림, 구토, 설사, 어지러움, 전신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이 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한림종묘사 감귤묘목 분양. Lists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their prices.

감귤묘목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Includes a list of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nlim Jongsomyo.

감귤묘목 탱자묘목 2년생 8만본 판매. Details about citrus and tangerine seedlings for sale.

감귤묘목 분양. Lists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prices, including contact info for Minseong Jongsomyo.